

제41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7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 긴급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 1
-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 1
- 긴급 현안질의 3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2시간 정도 늦게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14시05분)

○위원장 송언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2조 4468억 원에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일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3. 긴급 현안질의

(14시10분)

○위원장 송언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대외 신인도와 국가 신용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런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정부와 또 위원장님 그리고 여당의 반대로 그동안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기재위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우선 표명을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또 대통령의 그릇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신뢰도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또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 역시 부총리한테 있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정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경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정책이 정치적 일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국회와 정부에 국정협의를체를 제안했고 또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 위기 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비롯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또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수출 대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총리께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가 터진 후 14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될 기재위가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도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적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총리직을 지금처럼, 혹은 더욱더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처럼 경제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와서 국민께 드릴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의 신뢰와 외국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지만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박성훈 위원 계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검찰이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적시를 했어요.

○정일영 위원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침 6시 전……

○최은석 위원 아니,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 내란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김영환 위원 검찰이 적시를 했다고요.

○정일영 위원 지금 저 발언 중입니다.

○박대출 위원 국회가 재판소예요?

○정일영 위원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

○김영진 위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발언하세요!

○정일영 위원 발언 중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정일영 위원 발언 중입니다, 발언!

○최은석 위원 내란 비상계엄이 말이 됩니까?

○김영진 위원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말을 못 해요!

○정일영 위원 아침 6시 전……

○김영진 위원 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정일영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김영진 위원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

○김영환 위원 앞에 있는 야당 위원들 지하 벙커로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정일영 위원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김영진 위원 왜 말하는 자유를 막아요? 자기 발언을 하세요, 내란 아니라고!

○정일영 위원 발언 중입니다.

○김영진 위원 왜 발언을 막아요?

○박홍근 위원 옹호하셔도 되니까 자기 발언 때 하세요.

○김영진 위원 옹호하세요, 내란이 아니라고. 극우를 위한 결단이라고 얘기하세요!

○정일영 위원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발언 중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고요! 왜 발언을 막아요?

○정일영 위원 계속합니다.

아침 6시든 7시든 부총리는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어도 똑같이 성공한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해외투자, 외신 등의 일정으로 이제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가 그나마 좀 안정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국회에는 오지 않고 해외투자자, 글로벌 신용사의 면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였고 탄핵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예산심의 때 최종 의결 때까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의결된 이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마치 국회의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증액과 관련해서 국회와의 협의 일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산 적극적 편성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총리는 추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는 똑같은 식으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책임지고 있습니까? 환율 방어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 기재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대하는 이유와 내년 예산안 조기집행 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좀 켜 주십시오, 중간에 한 1분 이상 없어졌는데.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시지요.

○정일영 위원 30초면 끝납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그냥 30초만 주십시오. 중간에 이것 얘기를 못 했어요.

○위원장 송언석 이쪽에 공분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정일영 위원 비상계엄 논의 때 대통령이 부총리께 문서로 전달한 지시사항, 해당 문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후 현재까지 민생경제 대책, 각종 회의 현황,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부총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를 비판하거나 추경을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에 언제든 성실하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계엄 해제되고 하는 과정에 기재위를 조속히 소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소집 안 했느냐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그런 비상 상황일수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 위치에서, 정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을 국회에 불러 앉혀 놓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수록 행정부에서는 정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 분 간사님께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의된 일정으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총리겸기재부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오셨으니까 그간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국내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충분하게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대응을 잘했는지 또는 중간에 좀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최은석 위원님 손 먼저 드셨습니까?

○최은석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경제부총리 또 한은 총재께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인데 저는 여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서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그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직 법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서 이 부분 삭제하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박홍근 위원 아니, 뭐 우리가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를 지금……

○위원장 송언석 오늘 현안질의를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박홍근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국회 생활 오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어를 써라,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 너무나 금시초문이고 낯섭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위이건 간에 우리는 공직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선택하는 용어가 있을 거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선택하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하라, 말라라고 그 누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상대 위원의 발언, 그 표현, 그 생각까지 이제는 규정해 줄 겁니까?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각자의 발언에서 과도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 발언자가 책임지면 될 일 아닙니까? 왜 어떤 표현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 그 누가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시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끔 해 줘야지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기를 위원장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바로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좀……

○위원장 송언석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엄중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표는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그것을 또 경제 당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자는 게 오늘 긴급 현안질의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인가요?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지금 수사 중인 사항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특히 우리 헌법이 존중하는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자칫하면 국민에게 다른 오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 하나를 가지고 오늘 현안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단순히 나는 내 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이나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차원의, 표현의 자유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국회 상임위원 기재위원회가 오늘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그런 표현을 해 달라는 게……

○박홍근 위원 수사기관이 쓰는 표현이에요.

○박대출 위원 지금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걸 우리 국회에서 먼저 예단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는 우리가 극자제하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이 논쟁이 자꾸 진행이 된다면 그 발언 취소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와 있지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께서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와 계십니다. 지금 두 분만 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와 한은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까지 지금 다 회의장 내외의 안팎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분들을 불러 놓고 이 소중한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잘못을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기재위원으로서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먼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이 비상계엄 당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대통령의 문건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나와 가지고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건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꼼꼼히 읽어 보셨을 텐데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당시 접힌 쪽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그런데 그 쪽지를 받은 거는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나중에 저희가……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그 뒤에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진성준 위원 지금은 확인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을 했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뭐, 제출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사본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 국회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재정자금의 확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혹시 그 문건에 F4 회의를 소집해라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제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보지는 못했고요.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F4 회의는…… 제가 그 문건, 그러니까 그 쪽지를 받기 전에 제 스스로가 제 판단으로 소집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F4 회의는 재정자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언제 그 F4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F4 회의는 그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제가 인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소집을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실무적으로 연락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시간은 언제로 정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1시 40분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했는데 아마 받은 실무자들이 11시 40분으로 나중에 정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
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지 한 한 시간쯤 후에 소집된 것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왜 그러느냐 하면 한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 다 모여야 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대충 계엄이 발표된 게 10시 반 정도 되는 거니까 10시 한 40 분 정도에 연락을 해서 한 시간 뒤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것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걸 내 잊고 있다가 그 F4 회의를 마치고 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간부회의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기재부 간부회의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재부 간부회의는 정부 1청사에서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진성준 위원 그때야 생각나서 그 문건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차관보에게 그 문건을 맡기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나오면서, F4 회의 하기 전에 그 문건을 주머니에 넣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면서 제가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아까 뭘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시장 안정이나 그 부분에 제가 온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요.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보에게 맡겼는데 회의하면서 그 문건이 생각나서 차관보에게 그거 다시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 얘기하면 회의가 한 12시 5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12시 50분에 저희 간부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엄이 있었다, 제가 반대를 했다, 난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간부들한테 시작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진성준 위원 글썄, 알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없이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거 논의를 했고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진성준 위원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것을 보고 그 문건이 생각나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셨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그러고 나서 회의 끝날 때쯤에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차관보가 아까 문건을 맡겼다고 저한테 인지를 시켜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간부회의 도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간부회의 끝날…… 한 1시 50분쯤 끝났는데요, 그때쯤.

○진성준 위원 끝나고 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끝날 때쯤. 끝나서.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 문건을 읽어 보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문건을 읽어 본 건 아니고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면 문건은 언제 읽어 봤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참고하라고 그랬다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때 인지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읽어 본 것은 언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적기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서 위기대응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한은에서는 현재 경제 여건이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라든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과거 두 번의 탄핵 사태와 달리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탄핵국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한은 총재님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다량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율 급등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물가상승과 서로 맞물리면서 환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존경하는 박 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동성을 무제한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나간 RP를 통한 유동성은 한 14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거나 저희가 평상시의 통화정책을 하는 수준에 비교해 보면 유동성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려서 환율이 올라갔다든지 물가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지금 수준의 유동성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말로 인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백스톱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을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은행의 평가는 지난 토요일에 나간 보고서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도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서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국외 사정이, 국외 영향이 예전과 다른 면이 좀 있는 만큼 국외 환경의 변화에는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메시지였습니다.

○박성훈 위원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갈 경우에 외환위기 우려에 대한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등을 고려해서 한은 총재님의 우려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어떤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다만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면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고 또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 차입을 하거나 하는, 작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시장 대응 등의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보유고가. 그다음에 저희가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에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IMF나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보니까 11월 IMF 보고서에 한국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무디스도 한국의 큰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유동성 위험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경제부총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유입 여부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황 발생 후에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희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최근 기재부 경제 진단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이 14개월 만에 빠지게 됐고요. 대신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일시적 조정인지 경기 전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용어가 삭제된 것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건설을

포함해서 내수 지표들이 좀 둔화된 것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속보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 심리나 그다음에 경제심리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다 이런 두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12월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좀 더 명확히 정부의 판단을 밝히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부총리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언급하신 차관보가 최지영 차관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최기상 위원 누구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최기상 위원 오늘 출석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최기상 위원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세요.

부총리님이 아까 그 계엄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라고 수사기관에 말씀하셨으면 저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마 수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으셔도, 오히려 더 경황이 없고 중요한 상황이니깐 중간에 읽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읽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중간에는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인지할 못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시장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 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부회의 모두에 반대를 하고 왔고 사퇴할 생각이고 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모두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국회에서 의결된 걸 제가 시청을 했고, 시간상.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를 리마인드시켰는데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아,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차관보님, 그 내용 읽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저는 봤습니다.

○최기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F4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등의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대부분 재정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기상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전혀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아주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신인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총리 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정책을 하니 우리가 견딜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상황 후에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원래 그전에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발생을 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 내용에는 사실은 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그러니까 저희가 7월 3일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 정도로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속보 지표를 봤을 때도 대면이나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속보 지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의 수많은 분들의 말씀 중에 지금 당장의 국민들 그리고 현재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국민들을 위로하시는 것도 큰 숙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맞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요, 그때 저희가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연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다른 방안도 같이 해서 적절한 시기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윤인대 차관보님,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대한민국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서는, 부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부서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을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니다.

○**황명선 위원** 안 했다면 헌법에 의해서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발언한 것,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헌법과 법률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제 법률 상식으로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쪽지를 썼는데 이것은 지시사항 아닙니까? 쪽지를 썼는데 어떻게 쪽지를 안 읽어 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를 썼는데, 대통령 보고를 가면 참고 자료라고 많이 받아 옵니다. 물론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황명선 위원** 굉장히 엄중한 그런 비상계엄 상황을 지시하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지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었고……

○**황명선 위원** 그날 만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었고 저는 그 당시에 F4 회의를 소집하고……

○**황명선 위원**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이 어찌 됐든 간에 부총리한테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것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경향도 없었고……

○**황명선 위원**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이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의사도 없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윤 차관보님, 그 내용 봤다고 했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황명선 위원 그 내용에는 뭐뭐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제가 제 소관은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명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쪽지인데요. 부총리께서 주시는 쪽지인데.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 등 재정자금을 확보’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메모가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출, 물적이든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지금 그 메모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제가 재정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들고 있다가……

○황명선 위원 아니, 재정 담당이 아니고 메모를 봤으니까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 정도 기억나는 거거든요.

○황명선 위원 계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계엄군이 민간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게 되면 보상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 쪽지, 메모에는 결국은 계엄군에 대한 지원, 예비비……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라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확보를 하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라는 게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계엄군들한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쪽지, 메모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것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글이 많지가 않았고요.

○황명선 위원 아니,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명선 위원 예비비를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계엄군한테 지급하라고, 예비비는 계엄군한테 지급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위원님, 그것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부총리님, 11시 40분에 F4 회의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날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렇게 안 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간담회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도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 내용은 저희가 요약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황명선 위원 그 회의 내용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보도자료를 그날 저희가……

○황명선 위원 그날 F4에 참여했던 분들 이외에 배석한 간부들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희 네 사람만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배석한 간부들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마 그날은……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결정을 하거나 자료를 내거나 할 때는 네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배석한 분 없다 이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옆에 한은 총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황명선 위원 한은 총재님, 그날 배석한 사람 있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따라왔던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서……

○황명선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

PPT 자료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해 가지고 11시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3일 날 11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11시 40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황명선 위원 예, 40분에 뿌렸어요.

11시 40분은 뭐냐 하면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침탈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12월 7일 제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경제 상황을 보면 참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코스피는 -5.6%, 코스닥은 -9.2%, 4일간 144.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블랙먼데이로부터 참혹한 결과, 현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경제 리스크의 핵심인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김영진 위원 조용히 하세요.

다음, 두 번째……

○박대출 위원 말조심해요.

○**김영진 위원** 그리고 대미 달러 환율은 당일 1406원에서 12월 13일 1432원까지 2% 급등하면서 과연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국민과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사건이 12·3 내란 사태, 계엄에 의해 촉발돼서 나타난 사안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F4 회의를 한 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고 또 그다음에 국제시장은 낮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우리 금리가 이렇게 폭등해 나가면서 이후 여러 가지 금리 인하라든지 여타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외국의 대한민국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해 나가면서 수출과 내수에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염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첫날 만났을 때는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환율이, 저희 11시 만났을 때 1400원 선에서 천사백사십몇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여러 각도에서 걱정을 하고 해석을 하시는데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자고 하는 그 문장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우선 안정시켜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셨고 간담회에서도 그 문제를 정확히 대응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방향이 충분하게 감내하고 대외 신인도, 외환보유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총재께서 전 세계에, OECD 총재라든지 정확히 전달해 주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고 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부정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통고하지 않았습시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시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시다.

형법에 있어서 내란의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즉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총을 들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겁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명확하게 내란의 죄를 형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정확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범정부적으로도 정확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신영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3분을 주시면, 아까 발언권 주셨는데……

○김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평등하게 해 주세요. 저번에 하셨잖아요.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잖아.

○위원장 송언석 1분만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한 번……

○김영진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아까 저희 민주당은 안 주고……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김영환 위원 현안질의하시자고 그러셨잖아요.

○김영진 위원 현안질의하세요!

○박대출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현안질의하세요!

○박대출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김영진 위원 평등하게 하세요!

○박대출 위원 방해하지 마시라고!

○신영대 위원 야당은 의사진행발언 안 주고……

○박대출 위원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평등하게 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대출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신영대 위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저 아까 손 들었어요, 의사진행발언 기회 달라고.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김영환 위원 아니, 현안질의하시자고 그러셨잖아요.

○박대출 위원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이 국회에서 내리겠다는 겁니까?

○김영진 위원 현안질의하세요, 현안질의로! 현안질의에서 그 내용을 하시라고요!

○박대출 위원 이런 것을 위원장이 용인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현안질의하세요!

○박대출 위원 당장 수정시키고 속기록에서 삭제 요구하세요!

○신영대 위원 아니, 한 분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김영진 위원 두 번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대체?

○신영대 위원 다른 분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면서!

○위원장 송언석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두 번, 세 번 많이 했습니다.
-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줘야지, 야당 위원한테도!
- 김영진 위원 박대출 위원한테만 두 번 주는 것 아니에요?
- 박대출 위원 저한테만 한 번 주십니까?
- 김영진 위원 두 번 줬잖아요!
- 신영대 위원 두 번 했잖아요, 지금!
- 박대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두 번, 세 번 준 게 한두 번이십니까?
- 김영진 위원 안 됐어요!
- 신영대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송언석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진 위원 현안질의하세요! 현안질의하시라고!
- 위원장 송언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 박대출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 진성준 위원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 박대출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 진성준 위원 내란이 아니라는 거냐고요!
- 윤호중 위원 아주 군복 입고 들어오시오. 박대출 위원, 아주 군복 입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시오!
- 진성준 위원 내란 동조야, 내란 동조! 정신 차리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란 동조하고 있어.
- 신영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송언석 자, 조용히 해 주세요.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대 위원 질의 5분 다시 시작해요, 5분.
- 박대출 위원 여기는 국회입니다. 여기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 신영대 위원 의사진행발언할 것 같으면 박수영 간사 하셔도 되고 박성훈 위원님 다 하셔도 상관없다니까요? 저희도 주고! 그런데 한 번 아까 하셨어요. 저 손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예, 알았습니다.
- 신영대 위원 그런데 기회 안 주셨잖아요. 저 주렵니까, 다음에?
- 위원장 송언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대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시렵니까?
- 위원장 송언석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질의해 주십시오.
- 박대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 위원장 송언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출 위원 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지금 쪽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쪽지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된 겁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쪽지 내용의 파악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 상황을 설명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같은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그 자리에서 실무자로부터 참고하라고 하는 쪽지 모양, 접혀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받는 상황에서……

○박대출 위원 A4 용지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접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박대출 위원 아, 접혀 있는 거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접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 중에, 그때는 정말 경황도 없었고 시장에 제가 F4 회의를 소집하고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머니에 열떨결에 넣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다음……

○박대출 위원 그 쪽지 내용은 그 당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안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왜냐하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저한테 줬기 때문이에요.

○박대출 위원 참고 자료라고 해서 줬다는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참고 자료라 그랬다 그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13일 S&P나 무디스, 피치 이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부총리 만난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세 군데……

○박대출 위원 화상회의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전부.

○박대출 위원 거기서 그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신용평가사들이 일단 저희가 초기 대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은 총재도 계시지만 저희가 F4를 통해서 한 초기 대응을 잘해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정치, 그 당시에는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그다음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저희 경제 시스템이나 또 국회에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인도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국회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무리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여서 우리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현재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안정적이다, 불안하다 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재로서는 신용등급은 안정적이고……

○박대출 위원 안정적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는 듯한 그런 언론보도가 묘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총리가. 왜냐, 유동성 무제한 공급 메시지가 당일 23시 40분에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신속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 그런 오해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몰랐고요.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은 12월 3일 날 9시 40분에 ‘대통령이 찾으니까 들어오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저는 집에서 사복 차림으로 9시 55분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F4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F4 회의를 신속히 소집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것이 사전에 뭔가 알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추경 문제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삭감한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저는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추경에 대해서는……

○박대출 위원 지금 추경을 논의할 시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인식이야 마찬가지로, 상관없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어차피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지금 바로 벌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추경 논의가 나온 건 말이지요, 이것은 100원 주고 빵 사 오라 하는 조폭, 일진 놀이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단답형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추경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 아닙니다. 검찰이 쓰는 용어이고 공수처가 쓰는 용어이고 국수본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내란 사태의 수괴,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검찰……

저는 국민들이 정치만 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이 지하 병커에서 몽둥이질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종욱 위원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래서? 예?

○김영환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적당히들 하세요.

○김영환 위원 적당히 하라니. 발언하지 마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지금 반대의견 표시했다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처음에 도착해서 대접건실에 있어서 상황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김영환 위원 그때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집무실 자체에는 대통령만 계셨고 저를 따라서 한 두 사람 들어왔는데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환 위원 비서실 정도로 예측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뒤에 있던 국무위원이나……

○김영환 위원 국무위원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같이 두 사람 정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그 반대의견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셨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반대의견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지만 저는 너무 예측 밖이고 저도 당황을 해서, 놀라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하고 대외 신인도가……

○김영환 위원 경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경제와 대외 신인도가……

○김영환 위원 경제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경제와 대외 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요, 지금 상임위 의결 있었고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안이 정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액 얘기가 되기 이전에 감액안이 정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기재부장관이 ‘못 받겠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에서도 기재부 답변은 ‘못 받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와 있어요, 쪽지에.

지금 어떤 용도로 대통령이 이 쪽지에 이걸 넣었다고 예측을 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예비비란 단어를 기억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정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글썽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최상목 부총리께서 지금 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사에 참고인으로 계속 협조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도 지금, 어디다 제출하셨다 그랬지요? 국수본에 제출하셨습니까, 공수처에 제출하셨습니까, 검찰에 제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수사기관 어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니, 제출한 게……

○오기형 위원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환 위원 아니, 제출한 곳이 어디인지도 얘기를 못 합니까, 지금 다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뉴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왜냐하면 받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출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아니, 그걸 숨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가 숨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수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 아직도 저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메신저가. 부총리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준들 예전처럼 그게 제대로 먹히겠냐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국내로 여행 와라, 비상계엄 상황에도. 그러면 오겠어요, 사람들이? 소비해라 그러면 소비합니까?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영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30초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언석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가 경제 현안을 점검을 하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이 우선시되는 자리라고 알고 기재위 전체회의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경제 수장에 대한 계엄 청문회, 이 부분에 대한 청문회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지금 경제 수장에 대한 계엄 또는 탄핵 청문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송언석 정태호 간사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자꾸 야당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트리고……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를 통해서 잘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경제 사령탑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또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짚어야지요. 그리고 또 5분, 7분, 3분 발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용어는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이 소중한 시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지한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나가야 되는데 그 발언을 통해서 추진을 못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제발 그렇게 간섭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회의까지 했어요. 분명히 여당 위원님들은 이것을 파행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에서 봤잖아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자라는 것까지 저희가 회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위원들의 그런 자유로운 발언권을 존중해 줘야지 그런 큰 원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태의 위중함을 인지하시고 얘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자꾸 위원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개입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 사태의 위중함을 여당 위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송언석 박수영 간사님, 1분.

○박수영 위원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실 이 긴급현안질의가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리가 된 것이고 오늘 우리 기재위 회의만큼은 경제 관련 현안을 하자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 관련 현안을 주로 안 물으시고 정치적인 공격 이런 걸로 자꾸 치중해 가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태호 간사님께서 파행을 위한 작전을 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작전 짠 적도 없고 다 들어가서 경제 현안 점검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안심을 좀 주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오늘 소중한 시간이니깐 위원님들 조금 더 자중자애하시면서 민생경제를 좀 챙기는 질문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김태년입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내란 사태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의 메시지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누구냐, 메신저가 갖고 있는 신뢰 이게 시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원인을 쫓 따져서 가다 보면 현 내각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들께서 어떤 태도를 취했

나가 이미 뭐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지만 그나마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그마한 신뢰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함부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비호하거나 엄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불편해합니다.

○최은석 위원 비호나 엄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때 9시 50분경인가요, 대통령실에 도착한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한 5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년 위원 55분경에 도착을 했고 대점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올라가니까 몇 분 계셨습니까.

○김태년 위원 몇 분이 계셨을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그 몇 분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거를 이미 알고 계셨었고요, 그 국무위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들어가니까 부총리한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처음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년 위원 문을 열고 들어갔고, 두세 분의 다른 국무위원들도 함께 왔고. 여러 가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외 신뢰도가 추락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계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제가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계엄은 절대 안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명확하게 계엄은 절대 안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위배된다 이 말씀도, 법률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머릿속에는, 일단 그 당시에는 워낙 놀랐고 머리가 하얘졌는데 제가 경제부총리니까 일단 그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때……

아니요, 질문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뭐 뛰쳐나왔다…… 그러면 언제 뛰쳐나온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리고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그 안에서 계엄이 발표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제가 먼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아니고 하여튼 국무위원들 대통령과 함께 다 모였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윤석열과 함께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계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일단 대기실 같이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잠깐 나왔다가 몇 분 있다가 나가셨어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국무위원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는 있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국무위원 11명 모여 있었을 때 그때는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하고 외교부장관이 계속 반대를, 그 자리에서도요.

○김태년 위원 그 자리에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다른 국무위원들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이석하고 나서 나온 걸 뛰쳐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석하고 나서, 이석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여튼 제일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데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막 뛰쳐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상황 다 전개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진행되고 발표 직전에 뛰쳐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 안에서 하여튼 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계기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뭐 얘기하다가 저는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고 F4 회의를 소집했고, 나오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나오기 직전예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F4 회의가 11시 40분에 소집됐다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0시 한 40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F4 모인 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모인 건 11시 40분입니다.

○김태년 위원 11시 40분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모이는 시간 때문에 이때 모였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보도자료가 이 시간에 발표가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왜냐하면 저희가 모인 거는 한 11시 30분, 35분 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11시 40분에 모였는데, 35분이든 40분이든 모였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나간 거는, 회의가 12시 40분에 끝났으니까 보도자료 낸 거는 12시 40분, 1시쯤에 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안을 봤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첫 번째 보도자료가 11시 40분에 나오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시간이 11시 40분이라고 쓰여 있던 겁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시간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거기서 의논한 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고 문장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나간 거는 사실상 1시 다 돼서 나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 회의가 끝나고 문장을 만들었다 이 말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 중에 문장을 만듭니다.

○김태년 위원 회의 중에 문장을 만들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장을 보면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문장을 협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이것 왜 회의록은 없지요, 이 F4 회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게 간담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어 왔습니다.

○김태년 위원 법률상으로는 간담회여도 회의록이 있어야 되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거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법상으로는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

○김태년 위원 F4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방망이는 안 두드리더라도 의논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의논해서 인식을 공유한 다음에 각자 자기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간사님, 저는 오늘 이 기재위 전체회의가 지금 왜 열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경제 현장을 지키고 계셔야 될 부총리님하고 한은 총재님 오서 가지고 이게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국회 본회의도 그렇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게, 진짜 왜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요.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총리에 대한 신뢰 회복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께변 같습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이런 정국에서 정부에 대해서, 부총리나 한은 총재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감을 좀 더 보강해 주셔야 될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마치 부총리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무슨 추궁하는 이런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게, 이거는 진짜 되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최은석 위원, 말조심해요. 께변이라니요.

○**최은석 위원** 제가 조심할 거…… 께변이……

아니, 아까 뭐든지 말씀을 해도 된다면ですよ.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범죄인 이재명당’이라고 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수영** 자, 질의 계속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최은석 위원** 계엄 초기 발생했던 자본시장이나 환율의 변동성은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최근에는 처음의 변동성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저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신인도를 제고하거나 또 국내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점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외 신인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F4 회의라고 해서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면서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시스템은 잘 돌아간다는 걸 알려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놀랐던 것이 언론 화면을 보고 한국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재무장관들하고 신용평가사에 레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레터 하나 보내 준 것이 여기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금융기구나 신평사,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면담, 컨콜, 서한 발송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또 관련된 세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이걸 해서 돌아간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노력하겠습시다만 위원님들께서 여야와의 정책과 관련 없는, 경제와 관련되고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법률 같은 거를 연말 중에라도 꼭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글로벌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생이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투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계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빠르게 법안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은석 위원 한은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드릴 목적으로 여러가지 많이 집중하고 계신 그런 정책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단 한은의 경우에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초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조치가 유동성이나 이런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서 초기 조치가 됐고요.

현 상황에서는 한은이 할 수 있는 정책 수단보다는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움직인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이슈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대외에서 보고 또 국민들도 인식하게 해서…… 지금 상황의 경제지표를 보면 외국인 방문객 숫자라든지 수출의 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카드 사용량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다만 경기 심리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심리를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은과 기재부가 잘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경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먼저 묻지요.

총리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위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합니다. 12월에 임시회의 소집해서 기준금리 내리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미 연준, 모레 정책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경제지표가, 지금 저희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고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위원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1.9%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2.0보다 낮은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내년 성장률, 한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세출 확대, 출연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장률에 좀 기여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박홍근 위원 짧게 좀 하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우선 지금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한 -0.06%p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그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모레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보고서 공개하잖아요. 2%보다 더 낮아지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모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직은 얘기할 수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발표 전이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홍근 위원 계엄 해제 직후에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어떤 내용 말했는지 침묵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 기회 많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 궁리 찾았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위기관리, 그러니까 시장하고……

○박홍근 위원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제 얘기,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신인도에 중점을 뒀야 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행보 자체가 당시는 대외 신인, 그

러니까 경제팀의 메시지를 분산시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언급을 삼갔습니다.

○박홍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 담화문에 야당의 예산 폭거를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동의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떤 담화문……

○박홍근 위원 계엄 담화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 담화문에.

제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담화문에 언급된 예산 감액 내역 중에서 다수 사업들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감액했던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최종 협상 단계의 쟁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대통령께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보고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고요.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왜 대통령이 담화문에 그러한 거짓 주장을 버젓이 실습니까?

그다음에 부총리 소관 예산인 여러 가지 예산들을 계엄 선포 담화문에 잘못 담았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계엄 선포할 때도, 직후에도, 지금까지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그 계엄 선포 내용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F4 회의 개최 지시사항은 확실히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것은 당연히 제 판단입니다.

○박홍근 위원 대통령실에서 줬다는 종이, 예비비 등 재정자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억났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한참 뒤에 제가 차관보가……

○박홍근 위원 한참 이후에 기억했다는데 하여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한참 뒤에 보게 됐습니다, 기억난 게 아니고.

○박홍근 위원 그러면 기재부 자체 회의 끝나고 나서, 이미 그런 계엄의 지시사항은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그렇지요.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제가 그것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보다 계엄군의 돈줄 챙기는 데 정말 치열하고 추잡하고 졸렬한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계엄 선언 전에 대통령의 오판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경제 수장으로서 있었다, 경제문제 관련해서나 예산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엄 선포 이후에도 F4 등을 통해서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방첩사의 군인들 또 여기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명령 거부하다가 폭행당하고 이렇게 계엄 실행을 늦췄고 이랬잖아요. 오히려 그런 저항의 강도가 부총리보다 셧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의를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F4 회의에서 제가 사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핑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뒤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나름대로 공직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직에 연연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근 위원 같은 얘기면 안 하셔도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런 상황이…… 제가 하면 저는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마지막 딱 짧게 합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가 그때 마지막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불참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홍근 위원 그거야말로 직무유기고 부작위의 죄 아닙니까? 아무리 사의의 뜻을 속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상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 있어요? 빨리 국무회의 가서 1초라도 빨리 정족수 채워 가지고 계엄 해제시키는 일이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2시 6분에 받았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사후에 2시 30분쯤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한테 준 문자는 국무회의 소집 해제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도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회의나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외…… 그다음 날 시장이 있고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찾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부총리, 들어 보세요.

자, 국회에서 몇 시에 해제 요구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시 좀 넘어서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에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그것은 초등학교들도 그 해제의 절차에 국무회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무회의 요구가 있으면 냅름 달려가야지요! 빨리 해제해 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핑계를 대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핑계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은 밖에서 시장을 챙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시장 얘기 그만하세요!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지요!

○위원장 송언석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윤인대 차관보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면 카운트 부탁드립니다.

차관보님, 그 쪽지 A4 용지였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A4 용지로 기억합니다.

○차규근 위원 A4용지. 색깔은 혹시 기억납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냥 백색, 평범한 종이였습니다.

○차규근 위원 백색…… 혹시 대통령실 공식 용지던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규근 위원 백지……

그날 대통령실에 장관님하고 같이 들어가셨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아닙니다.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부총리께서 제 기억으로
는 그때 10시 20분 정도에, 10시 40분이지요, 정도에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F4 회의를
소집하라고 저한테 전달이 왔었고요. 제가 F4……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들어가신 게 아니냐?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아닙니다.

○차규근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재부 간부회의는 참석하셨지요? 12시 50……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때 그러면 쪽지에 있던 예비비 예산 확보 그것 관련된 논의가 있었겠
네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한테 주시고 난 이후에는 그때
잊고 계서 가지고……

○차규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기재부 간부회의……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간부회의 끝날 때쯤에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더
니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이미……

○차규근 위원 하여튼 그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는 예비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냥 결론만 내셨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쪽지 별도로…… 워낙 중요한 문서였는데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진으
로, 혹시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것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전혀…… 사실은 저는 별로 인볼브(involve)되고 싶지 않아
서 보존 외에는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됐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 반대했다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날 집에 계셨다고
요, 댁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녁 약속 하고 들어와서…… 곧바로 들어온 정도, 상태였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반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참…… 당일 국회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은 1시에 가결됐을 때 환호를 했고 하지만 그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제가 돼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들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농성을 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댁으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댁에 가신 게 바깥의 비상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 상황이 빨리 해제가 돼야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차규근 위원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그 당시에 쪽지를 준 실무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실무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차규근 위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알고는 계시지요, 누구인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개인적으로는 압니다만 전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릅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김동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누가 줬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차규근 위원 아니, 그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차규근 위원 저는 12월 3일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상황이 카메라에 박제된 것처럼 기억이 선명한데 장관님께서도 그 중요한 쪽지를 준 대통령실 실무자가 누구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차규근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당시에 경황이 없었고 그 쪽지는 저한테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됐습니다.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법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에 탄핵 관련 절차가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여하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불안 요인이 아닐까요?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거 사례보다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그 과거 사례라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90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내에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가 돼야 되지 만일에 그것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견해들이 많은데 총재님도 그것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낸 보고서는, 그 불확실성의 기간은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프로세스 관계없이 불확실성 기간 동안에 경제의 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60일 전이라도 이것이 작동해야 된다고……

○차규근 위원 만일에 그러면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90일보다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불확실성이 커지고……

○차규근 위원 커지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것은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만에 하나 탄핵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은 또다시 비상계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거기에 대한 답은 한은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부총리님,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직에 전혀 연연하지는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어떠한 경우든 지금 직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엄중 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지금 내란죄 등 수사기관들의 경쟁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곧 어떤 참고인 조사나 그것도 예정돼 계신가요? 어떤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또 당당하게 임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비극적인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 당도 가장 신속하게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해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냈었고요.

지금 현재의 걱정은 수습입니다. 질서 있는 수습, 차분한 수습 이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민생과 경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차분히 대응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차분한 대응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지만 내란죄라는 논쟁이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차분히 진행이 돼야지 이것이 실체적, 법적 판단이 드러나기 전에 막 논의되는 것이 저희 경제 상황 안정이나 민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말 엉뚱한 질문인데 경제관료로 평생 살아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평소에 내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꿈꿔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습니다.

○박수민 위원 내란죄가 형법에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평소에 범죄 구성요건이라든지 등등 미리 숙지하고 공부하실 그런 게 있으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학 다닐 때 수업에서 듣고는 처음입니다.

○박수민 위원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차피 수사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어떤 실체적인, 법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진실과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가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경제 상황 관리와 엄중한 상황 수습에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국무위원들이,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날 다 반대하셨지만 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공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여튼 흔들림 없이 대통령권한대행님 중심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그날이지요. 4일 아침 이후로 대통령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실장, 수석 등등 사의 표시를 다 하셨고 전 국무위원도 어떤 의사표시를 하셨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총리께 일단 그런 식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 실장, 수석, 전 국무위원이 사의 표시를 하셨었다면 정부는 이미 일종의 식물상태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사의 표명을 했지만 일단 총리께서 끝까지 직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다 성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민 위원 예, 그러면 직무는 수행했지만 대통령실 전 실장, 이하 전 수석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대한 반대 의향을 직을 걸고 다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위험성은 현실적으로는 낮아져 있었는데 잘 전달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적 판단 전에 정치적 논의가 있고 공세가 있기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인데 챙겨야 될 것은 금융시장, 무역, 저는 크게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하고, 금융시장 그다음에 무역…… 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실물 부문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하나 걱정은 수출과 내수가 이미 상당히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연말 회식이 취소된단지 내수 경기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아까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매출 전체보다는 대면 업종 중심으로 카드 매출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상으로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원인에는 원인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심리 문제기 때문에 심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못 해서 제가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상경제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경제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결국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 모든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의 국민이 모여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못 써요? 말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내놓으셨던 분들이 언제부터,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박근혜 탄핵 시에도, 그 당시에 직책이 뭐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재부1차관이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때 조사받으셨습니까, 특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특검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떤 검사님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합니다.

○신영대 위원 윤석열 당시 검사는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때 차관이었기 때문에 실무 검사한테 받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때 어떤 의혹으로 조사받았는지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 조사받은 것은 공정위 관련 건이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희가 언론보도로 알고 있는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한 혐의, 출연금 강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검은, 저는 K스포츠재단은 관여 안 했고 미르재단만 관여했는데 그 부분은 특검 건이 아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래요. 미르재단으로 그때 조사를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그것은 서울지검에서 받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르재단 조사받으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미르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간의 정상회담 준비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요 그 당시 차관 시절에, 기재부1차관 시절에 언론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다 위에서 정한 것이고 참여 기업 수도 모두 위에서 전경련과 협의가 됐고 우리는 그냥 시행하는 입장, 어느 누가 실무자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넣고 빼고 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문건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윤인대 차관보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문건이라고 표현하는데 A4 용지 한 장짜리였다면서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한 장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 안에 글씨가 몇 개나, 몇 자나 쓰여 있었습니까? 4분의 1입니까, 반절입니까, 짝 채워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냥 덩성덩성 글자를 쓴 것……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몇 자 안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몇 자 안 됩니다.

○**신영대 위원** 머리 좋으신 차관보님이나 장관님이, 부총리님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면피하려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볼게요.

차관보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날 11시 15분에 경제 대응 심야 긴급 회의를 소집하셔서 가지고, F4 회의를 소집해서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한다, 40조 증안펀드 조성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총재님, 이게 실제 비상경제상황을,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요 이게 기여가 컸겠습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이 더 컸겠습니까, 영향력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당연히 6시간 만에 끝난 것이 더 큰……

○**신영대 위원** 국회에서의 의결이 훨씬 더 컸던 상황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 발표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나 하면 그때 우리가…… 그 회의를 하실 때 대통령 윤석열이 뭐라고 하나 하면 ‘왜 다 못 잡아들이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해라’…… 국회의원 정족수인 150명이 채워지기 전이고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막으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게 우리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그래도 충격을 좀 덜 받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할 때는 계엄령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도 환율이 뛰어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쪽 위원들 질의에 부총리님 대답하시는 것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5·16 쿠데타나 10·26 쿠데타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경제 관련 부처의 대표자들이, 장관이나 각료들이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경제는 이 상황에도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소한 우리의, 그날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할 때도 답변하셨고 오늘도 답변하셨는데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문건을 보지 못했다’, ‘누가 봤는지 모른다’. 저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면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한은 총재님 두 분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장의 사령탑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두 분의 책무가 막중한 만큼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믿는다’라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이 점 심분 이해하시고 정말 실력 발휘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4대, 지금 우리가 처한 탄핵 정국을 봤을 때 네 가지의 경제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다. 이것을 지금 극복하는 게 관건이고 우리 두 사령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외환시장 안정 이것 초미의 일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내수 침체 이것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경기·내수 진작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파고, 트럼프 집권 2기 앞두고 기술 패권, 무역 전쟁 파고가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산업정책, 통상외교 전략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정부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지요. 국민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초당적인 정책협의체 가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여야에서 이런 법률이나 시급한 민생, 산업, 지금 말씀하신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민주당 당대표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여 측에서는 이것을 정책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라는 좀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급한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급한 국정 관리를 위한 층정에서 나온 야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정말 여 측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현재 경제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금년에 2% 정도로 떨어지고 생산, 소비, 투자 다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수출마저도 11월 달에 1.4% 아주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년은 더 어렵지요, 여러 가지.

그래서 현재 국제 IB로 보면 1.5%까지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엄 사태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100% 반영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까지도 한다면 1% 초반대까지도 밀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또 계엄 사태가 이번에 터지면서 정말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영업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영업자 88%가 지금 매출이 줄었다 그리고 절반 이상 준 데가 40%다 이렇게 보거든요. 연말 대목 경기 지금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의 생계 안정들이 필요하다, 특단의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재정에 관한 기조 바꿔 줘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리고 내수가 뚝 떨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도리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건전 재정성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어떤 교조적 도그마에 빠져서 결국에는 제대로 재정정책을 활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성장 잠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지출도 경상성장률 미만으로 한 상황에서 또 감세가 가세하다 보니까 큰 폭의 세수결손이 생겼고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지출, 저성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부총리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민생이나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으로 가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민생 상황이나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지난 토요일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세 번째의 대통령 탄핵,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슬프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 때 질의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를 자꾸 물으니까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적절한 예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불이 났다, 다 회의한다고 들어와야 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는 돈이 있는 돈가방을 들고 나가서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질문 중에 처음의 국무회의 소집에는 갔다가 두 번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 의결할 때는 안 계셨다고 지금 많은 질책을 받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부총리님이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니까 너무 당황했던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때 의결할 때, 해제 의결할 때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경제 상황 점검하는 문제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회의인지 모르고 소집해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두 개 마치고 나서, 아까 집에서 무슨 일을 하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받은 문자는 그냥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비상계엄하에 제가 어떠한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저희 직원들 앞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다 간부들이 동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안 갔고요.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해제된 것은 여기 TV를 통해서 들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의 소집은 2시 초반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것은 목적이 적시가 안 되어 있었고 4시 다 돼서 ‘해제 국무회의니까 오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때 이미 늦지요. 예, 맞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니까 들어오라고 했으면 아마 부총리님도 들어가셨을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히 갔을 겁니다.

○이인선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1시 3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했어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나름대로 F4 회의를 열고 대외관계장관회의도, 해외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시느라고 못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지난 14일에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강등시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정치적인 불안이,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정적자하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어 가지고 등급이 강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국가재정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총리님이나 총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재위에 와서 예결소위를 하면서 참 황망했던 것은요 예결소위에서 예비비를 처음에 6000억 하다가 1조 2000억 하다가 또 우리가 갑자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삭감할 수가 없다고 참여를 못 할 때, 또 차관님이 참석을 해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안 했다고 다시 2조 4000억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감정적으로 그냥 엇 자르듯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참 놀랐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많습시다마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 그리고 전공의 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예산들이 깎인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냐 하는 그런 자조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 어쨌든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물론 급하다고 생각하기야 했겠지만 민생예산 삭감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돌

아서서 또 추경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에 통과를 못 시킨 법들을 차곡차곡 통과시켜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재위에서는 규제 관련 법안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통과해야 될 건 통과하고 일하는 기재위가 되면 좋겠다. 정쟁으로 가는,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재정이 좀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많이 협조해서……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국무위원인 최상목 장관께 차분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란 행위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내란 행위면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의 가담했다면 누구든지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째, 내란 행위를 막 실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위헌성, 위법성을 인지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류혁 기준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인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 10시 40분에 방송을 보고 그리고 집을 나와서 법무부를 갔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과정 속에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사표 냈습니다. 바로 문제 제기했고 차관한테도 문제 제기했고 그 회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방첩사 법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첩사 처장이 선관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사나 강제조치를 요구했는데 안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예를 좀 듭니다. 제가 좀 뒤져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에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요건·절차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7급 공무원 이상 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태가 실제적 정당성이 있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다. 총리도 답변을 했지만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무력을 동원했으면 내란죄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포고령 자체에서 국회를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 위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위법·부당한 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실상 태업을 한 군인이나 경찰들, 헌법

질서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징계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국회에서 또는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국회의원 집회 방해하는 정치인 누구든지 간에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책임 지금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 국회 해제 요구 의결 요건입니다.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점 전까지는 상황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인식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아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담했던 사람이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각 부처에서, 법무부에서 무슨 회의 하고 했던 내용들이 그게 부화수행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셨듯이 기재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으면 기재부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 상당수가 본인 뜻과 상관없이, 1500명 이상의 군인들,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지휘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그 국가적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람들의 변처와 고민 그리고 인간적 갈등들을 지금 같이 책임지고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해야 될 시기인 거지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경찰이나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이상한 행동을 해 갖고 퇴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 속에서 부득이 파견됐더라도 철수한 군인과 경찰 그들에게 반란군의 명예를 씌워 주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면……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 3시간 반 동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그 시점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국방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상계엄의 계속을 계속 시도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란죄 가담자 아닌가 묻는 겁니다.

네 번째, 실제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내란죄에 책임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법률적 책임, 수사상 책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있는 것 아닌가 묻는 겁니다.

내란 행위 기수가, 이게 해제되면 기수라고 그러는데 종료됐는가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보니까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내란죄가 종료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탄핵 전까지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있어서 내란범을 수사해라 왜 요구를 안 했냐, 총리는 왜 안 했냐, 부총리 왜 안 했냐 묻는 겁니다. 답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나서는 건 공권력을 잘못 듣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누구 지시 없어도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겁니까? 그분들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 기

관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시 우왕좌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온 국민이 나서서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 중에 양심 있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최상목은 뭐 했는가, 그 일주일 동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핑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을 저희 기재부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의 대응은 저희 간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퇴를 하지만 우리는 계엄과 관련된 것 어떤 것도 응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의결을 했고요. 저희 간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나 이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회의의 목적 자체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해제된 다음의 저희의 상황은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언론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시다. 이유가 뭐냐?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게 개인의 행적이 경제팀의 메시지에 섞여서 경제팀의 메시지가 분산되면 그조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국회 대정부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보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한 분 더 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것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8년 전 파리 테러 사건 때 프랑스에 경비계엄이 선포된 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위협 없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계엄령을 동원하는 정말 후진국적인 정책을 쓴 예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나라 경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 자본주의 사회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방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고 우리가 머리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 보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호중 위원 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 집회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항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나중에 봤습니다.

○윤호중 위원 나중에 보셨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윤호중 위원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면 내년 예산은 뭐로 집행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포고령, 집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가 안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재정을 집행하려고 해도 재정이 없어요. 이런 재정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계엄령 더 적극적으로 막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이 엄동설한에 여의도까지 다 달려 나와 주시고 특히나 20대·30대 어린 청년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에 지금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고 그리고 탄핵까지, 의결까지 왔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의 책임자로서의 역할,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던 책임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거시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인 금리 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은 총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물가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단히 영향이 크고 또 현재도 1437원 이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 그러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통과해 주신 673조의 재정을 내년 1일부터 빨리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호중 위원 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이 충격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예산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은 총재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이자율 때문에 5대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상당한 수익을 올렸어요. 지난 3분기만 해도 5대 금융그룹이 순이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6조를 올리고 있고 이자수익이 38조, 역대급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한은이 나서서 이런

상황에는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그룹들도 그 수익의 일부분을 내놔서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특히 취약차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답변……

○윤호중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융기관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자본 적립에 쓸 건지에 관해서는 그간 계속 말씀드렸고요. 금융위하고 금감원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이창용 총재님, 탄핵심판이 장기화돼 가지고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보고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 경제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치적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최상목 부총리님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똑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기에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부총리님, 혹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천하람 위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천하람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 최근에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지난 사오 월경에 메이저

언론사에서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내부 정보보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해당 언론사가 이렇게 정보를 확보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걸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고 계엄 선포 시에 어떻게 할 것 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당 언론사의 정보보고에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민주당의 구성원들께서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을 때 저도 ‘무슨 음모론이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선부른 판단이 송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과거에 정보보고까지 있을 정도로 계엄이라는 것은 절대로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윤석열이 내란을 이번에 일으키기 전에 부총리께서 혹시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라도 계엄을 고려 중이라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믿는다거나라는 언급을 윤석열께서 한 적이 있는 걸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부정선거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약간 잘 안 풀리고 화날 때마다 ‘이럴 거면 그냥 계엄 한번 해 버릴까?’ 이런 말씀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혹시 부총리께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의 하나로 예산안 삭감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본인이 담화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총리께서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영향이나 아니면 야당의 협조 부족 같은 것들을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에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뭔가 인풋이 있어야 이런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에 있어 가지고 야당의 어떤 반국가적 행위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윤석열이 어디서 보고받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경제부총리가 모르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예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보고는 대통령께 가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전혀 개입도 안 하셨고 계속 반대했고 소수의 충압파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내란을 획책한 거고 나는 상관 없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반대하셨다면 사실 더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는 막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질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내란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경제, 외국의 외환시장 이런 부분만 체크했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심지어는 부총리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 행위, 이거를 뭔가 알리거나 언론에 얘기하거나 야당에 적극 접촉하거나 시도를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그걸 사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핑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확히 제가 이 부분도 언론에 한동안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현재 경제 사령탑이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경제 사령탑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자긍심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제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계엄을 반대하고 제가 사퇴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제 할 도리라고 생각했구요. 제가 그것 알게 된 것이 계엄이 발표되는 시점 한 10~20분 전에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12월 3일 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국회에 도착을 해서 세 곳의 출입문을 돌면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무장한 특공대원 50명이 속보로 국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잡히지 말고 먼저 본회의장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담을 넘는데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서 끌어내렸습니다. 한 두세 차례 끌려 내려왔고요. 이걸 시민들이 보고서 경찰관을 막고 저를 밀어 주고 해서 겨우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한 시민들 덕분에 계엄해제 의결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가는 걸 군인과 경찰이 막는 이 참담한 상황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계엄 상황을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였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물론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 밝혀지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도착하셔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먼저 얘기 꺼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부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엄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때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 아마 이런 정도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때 대통령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뭐 경황이 없더라든지 침착하더라든지 결연하더라든지, 보시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냥 지금 말씀하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쪽지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나갈 때 쪽지를 받아 가라든지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이행하라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그 쪽지는 나와서 받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때 쪽지 준 사람은 정확히 뭐라고 하면서 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한테 이것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줬습니다.

○임광현 위원 참고하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임광현 위원 국무위원들이 그 당시에 쪽지들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조태열 장관도 그렇고 다 쪽지를 열어 봤다고 그러는데 부총리께서 안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때 대정부질문 이후의, 부총리 하신 이후의 댓글들이에요. 보면 ‘쪽지 내용을 기억 못 한다? 그런 상황에서 쪽지는 충격적이라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다. 아직도 숨기려고 하다니’ ‘그 똑똑한 장관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통령한테 받은 쪽지의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못 읽었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계엄 상황에 연루될 수 있겠다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안 보신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계엄에 반대했고 저는 튀어나오면서 사퇴를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밖에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만 생각했구요.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을 제가 볼 생각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임광현 위원 나중에 보니까 1시경에 봤다고 그랬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시가 아닙니다. 1시 한 50분경에 봤습니다.

○임광현 위원 1시 50분경에 봤는데, 아까 차관보는 계엄 관련해서 예비비 확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부총리께서는 대정부질문 때 무슨 유동성 확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재정자금의 유동성 확보 정도로, 워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임광현 위원**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 하면 이게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니까 무슨 통화량이나 달러 확보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본 내용은, 차관보께서 증언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이해를 달리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차관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보다는 좀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차관보가 보여 준 것을 언뜻 봤거든요.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런데 대정부질문을 했던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인데, 내용도 많지 않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의도적으로 안 보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관보가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지를 않았습시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도 차관보가 제출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누가 제출했습니까? 차관보가 제출했나요, 부총리께서 제출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시다.

○**임광현 위원**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지침을 쪽지로 지시했다면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는 대통령 주장하고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계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또 한은 총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계엄 선포 당일 날 집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담화문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마지막 무렵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시다. 이게 진짜인가 현실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랬습시다.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부총리라든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았을 충격이라든가 또는 당황했음은 저는 상상이 갑니다. 저는 부총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부총리가 어쨌든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부정적 후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일단 확인하는 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총리, 그게 국무회의로서의 어떤 실체가 있었던 회의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회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저는 이걸 국무회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것은

형식과 절차 면에서 절대로 국무회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요도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국무회의로서의 어떤 실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위법함이 명백한 겁니다. 단지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하겠다고 결심한 사항을 그냥 순차적으로 오는, 그 당시 모였던 국무위원들에게 통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정부질문 과정이나 오늘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어떤 조그마한 쪽지인지 문건인지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경고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해 가지고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고요. 장관은 정확히 그 문건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차관보는 대개 예비비 관련한 문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예비비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분명히 그 예비비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예비비, 그런 준비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좀 그래요. 사실 예비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과다 편성되어 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평균 2조, 3조 내외에서 편성되던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조 넘게 편성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침을 받거나 강한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성호 위원 부총리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2월 2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예비비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예비비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예비비 삭감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 편성…… 물론 그게 누가 작성했는지, 기재부에서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작성했겠지만 따로 예비비에 관련해서만 장황하게 그걸 비판하는 걸 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정말 굉장히 잘못된 중대한 상황 인식의 오류가 있었고 충격적인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오판에 관련해서,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서 말쑥한 국가의 신인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대통령이 오판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기재부나 또는 부총리의 책임은 없나 저는 이 점을 한번 묻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하면서 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국회가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을 남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절차에 의한 국회의 권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삭감했다 쪽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예산에 관해서 이런 인식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부총리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부총리한테 말씀드렸고 지난해 국정감사 할 때도 그랬습니다. 과연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한데 장관이 대통령과 얼마나 경제 관련된 소통을 하고 있었나? 예산에 관해서 소통을 했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저는 그런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도 뭔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 인식에 굉장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1월 29일 날 예결위에서 의결됐을 때 장관이 이렇게 했어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등등 얘기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훼손하고 마비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국회가 감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는 걸 장관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관이나 뒤에 계신 기재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대한 오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도를 가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게 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장관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정치적인 질문은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쓴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습니다만 내란죄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고 내란 동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민주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전과 4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범죄자 이재명이 이끄는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 제공자입니다.

무슨 말이나? 저 초선입니다. 지난 7개월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감사원장까지 스물두 번 했습니다. 체크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 한미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흠집 내고 트집 잡았습니다. 맞지요?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포퓰리즘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거부권이라는 부담을 계속 대통령실에 안겼습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헌정 최초 감액예산만으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국헌 농단,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닙니까?

물론 비상계엄은 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참고, 아프다 신음소리만 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저희와 다릅니다. 국정 전반을 바라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은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패착이 되었고 더 참고 더 끝까지 버티셔야 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민주당에 오히려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저는 무엇보다 원통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예산, 예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재정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사고였다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결위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예결위는 모든 상임위 의결이 취합되고 예결위 전체회의는 모든 국무위원과 모든 국가기관장이 모여서 토론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고, 지금까지 예결위 결과는 그냥 본회의 결과로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방적인 힘자랑을 했습니다.

예결위를 일방 의결한 다음에 협상을 하자 한 거지요. 답답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태도로 예결위 자체를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최초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증액에 대한 헌법상 정부 동의 권한을, 증액에 대한 동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요구하면 야당이 증액요구 수용 권한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사고는, 예결위 건은 정부 도움 없이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기재부차관님도 영입하시고 국세청 차장님도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예산안도 만들고 세출예산도 조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인 오류도 있었지요,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안을 만들어서 부랴부랴 고치는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정부 도움 없이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제 예산안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모한지 입증한 거다 이렇게 생

각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이나 총재님, 지난 12월 3일의 내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특공대를 투입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특공대로 하여금 공격하게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습니다.

제가 연수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지난 21대 선거 때 그 상대가 민경욱 전 의원이었는데 거의 4년 내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대법원까지 계속 갔습니다. 끝내 모든 기표 용지 다 검표하고 QR코드까지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부정선거, 대한민국에 없는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흔든 12월 3일의 내란 비상계엄…… 아까 제가 그 용어를 쓰니까 ‘속기록 삭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모든 기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이런 표현도 다 쓰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국무위원들이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장관들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 다소 똑같은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질의를 하는 것은 장관님의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신뢰를 얻어야 되고 명쾌하게…… 장관님이나 국가, 국민을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대통령께 그 당시, 지금 내란 수괴로 돼 있지만 대통령께 어쨌든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한 1분, 2분, 5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정일영 위원 조금 더 가까워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 제가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나름대로 당시로써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여러 차례요? 주로 이 경제문제 가지고 반대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시에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우리 대외 신인도나 그다음에 경제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 담당 장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 PPT 보면 타임라인 순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은 ‘제일 빨리 뛰어나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뛰어나오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문을 박차고 달려 나오신 거예요? 뛰어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 이걸 핑계 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날 어떤 방식이든 기재부 간부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석했다는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강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좋아요.

그러면 F4 회의 소집을 하겠다고 최소한 총리께는 얘기하고 나오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안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냥 혼자 나오셔서 F4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집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소집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F4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상황이 잘 운영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냥 무조건 경제문제 때문에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사퇴 결심을 하고 나온 거는, 그리고 나와서 F4 회의 멤버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고 저희 간부들과 같은 걸 공유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총재님도 그 얘기 같이 들으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들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자리에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그 문건 문제인데, 그 당시 이 문건을 처음에 대통령께 얘기하러, 그때 받으신 거예요? 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받으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나서 받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문건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이 주신 게 아니고요.

○정일영 위원 아니, 들어 보십시오.

대통령이 준 거 아닌 것 아까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그 문건 얘기는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옆에 실무자한테 뭘 받아 가라고 하는 눈치였습니다.

○정일영 위원 여기 속기록에 보면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료 하나를 줬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자료를 줬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보면 그게 결국 재정자금하고 유동성, 결국 예비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일영 위원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보님은 아까 예비비 언급을 하셨고, 유동성은 한국은행도 같이 조치를 한 거예요? F4 회의에서 유동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제가 그 문건에 대한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제가 재정자금의 유동성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예비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어쨌든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제가 2조 4000억 삭감을…… 다소 좀 다른 발언을 제가 정정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2조 4000억 내년 예비비 삭감 처음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비상계엄 용도로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내년 예산에 예비비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또한 걱정이 됩니다. 이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용산 도착 시간이 한 9시 55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건 10시 40분쯤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 대통령 와서 얘기하신 것도 듣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하는 것까지 다 듣고 나오신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계엄 선포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마는……

○정태호 위원 여하튼 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이미 계엄 선포하고 나서 나오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나왔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부총리께서 사실상 전 과정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한테 경제에 대한 충격 때문에 계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그에 대한 답은 뭐였어요? 구체적인 워딩이 어떻게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돌이킬 수 없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뭐 그냥 돌이킬 수 없다는 정도의 워딩이 생각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경제에 대한 걱정도 없이? 뭐 경제 망가져도 상관없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정도 말……

○정태호 위원 아주 절실하게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거지요.

오늘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예비비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는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엄을 집행하기 위한 자금까지도 고민했던 거지요,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재부가 그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현재 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재 결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총리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면 현재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뭐 어떠한 결정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는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그게 지금 해외에서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결정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결정까지.

가장 대외적인 메시지에 있어서는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적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권, 국회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국정협의체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쎄요. 저는 명칭과 관계없이 여야에서, 국회에서 장을 만들어 주시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창용 총재께서 통과된 예산이 성장률에 -0.6%,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0.06%.

○정태호 위원 0.06.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면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지금 현재 재정으로는 긴축 수준이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긴축 상황에서 결국은 0.06의 마이너스 영향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상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정책 측면에서 지금은 통과된 내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시작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의 어떤 민생 상황이나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정책 그다음에 대응조치를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 위원 그런데 원래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안에 비해서 4조 이상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전체가 673조입니다.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삭감된 부분을 포함해서 증액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제가 드렸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정태호 위원 거기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겠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내년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태호 위원** 당연하지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편성돼 있는, 확정돼 있는 예산안이 -0.06의 부정적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급하게 이 부분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정태호 간사님 7분 쓰셨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우리가 지금 오후 내도록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들을 지켜보면 야당 위원들 그리고 여당 위원들 일부까지, 저는 우리 거시경제지표라든지 실물경제라든지 이런 걸 짚는 질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일 날 부총리가 몇 시에 어디 있었냐, 쪽지를 받았냐, 쪽지 내용은 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부총리님하고 총재님께서 상황 관리를 잘하신 덕분이 아니냐. 경제에 당장 큰 문제가 안 보이니 이런 정치적인 질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부총리님과 총재님 그리고 경제팀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직업 공무원들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5시에…… 이제 5시 지났잖아요. 5시면 유럽장이 열리는 시간이라서 사실은 빨리 가서서 상황을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 잡아놓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속히 보내 드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인대 차관보님 나와 주시지요.

차관보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쪽지 관련 질문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박수영 위원** A4 용지에 들어 있는 글자를 기억하는 건 ‘예비비 확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비상계엄 관련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박수영 위원** 기억이 안 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박수영 위원** 즉 ‘비상계엄 집행 관련’ 이런 얘기는 추측에 불과하다, 지금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제가 기억나는 건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하는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는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경제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님, RP가 원래 목요일 날 정기 매입하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비정기 매입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까지 14조 한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14조 했는데 실제로 매입된 건 전부 다는 아니고 12조인가 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마 갔다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4일 날 바로 비정기 매입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경제 당국으로서는, 금융 당국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인대 차관보가 보관하셨다는 메모도 예비비, 유동성 이런 단어가 생각난다고 하니 저는 이게 비상계엄 집행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다, 추측에 불과하다, 전혀 그런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재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부총리님께 거시변수 8개에 관해서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었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이 변수들은 총재님한테 물어봐야 더 맞는 변수들이었습니다. 국가 신인도 3개, 무디스하고 피치하고 S&P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우리 국가 신인도에 관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변화가 없고 저희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외평채, CDS 프리미엄 이걸 또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 3bp 정도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그건 연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 변동이 없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국고채 금리는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국고채 금리도 그 전과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신용스프레드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도 크게 변화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코스피·코스닥 지수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수는 변동이 굉장히 커서요. 굉장히 급락했다가 지금 이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이, 외국인이 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지수는 12월 2일 지수랑 거의 비슷한 상황에 지금

와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박수영 위원** 외환보유고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외환보유고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크게 변동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우리가 순대외금융자산이 약 1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 경제를 지켜 주는 외환보유고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8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환율 빼고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당일 경제부총리가 답변 하였고 지금 총재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런 대로 지금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 장기화만 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계속 해외 투자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프로세스가 정치 프로세스와 관계없이 정상화되고 있는 지를 관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총리와 총재님 계신데, 사실관계가 확실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유추 해석이나 추측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줌……

○**위원장 송언석**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위원** 보충질의에 관해서 여당·야당 간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추가로 5분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하시도록 하는 대신에, 저는 부총리와 총재가 하루속히 빨리 현업으로 돌아가서 유럽장이라든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여당 위원들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날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이제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부총리께서는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 오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발표하고 다시 국무회의장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지요. 잠깐 있다가 당신의 집무실로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진성준 위원** 그렇게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때 상황에서 ‘제 이름을 부르셔서’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을 떠나서 당신의 접견실로 들어가면서 최상목 부총리를 부른 겁니다.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장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F4 회의를 소집을 하느라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기재부장관’ 그러더니 손짓을 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주면서 참고 자료,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저를 쫓습니다. 뭐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인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그 문장만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정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관보는 예비비라는 말까지 기억을 했던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그 위딩을 그냥 그 정도 뜻으로만 이해를 했고 정확한 위딩을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같은, 시장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라 이런 지시는 그 문건에 없었고 계엄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계엄 자금을 확보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문건 갖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때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위딩이, 제가 그 부분은 추정을 해서 앞부분은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매뉴얼이 따로 준비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간부회의 시작하면서 ‘나는 계엄에 반대하고 사퇴할 용의도 있고 또 계엄에 관련된 조치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가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조치는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진성준 위원 그것도 없는데 뭘 계엄과 관련한 조치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회의 같은 건 소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의논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는 저희가 비상계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그때가 12시 50분…… 1시 50분? 제가 헛갈리네요. 12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체를.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계엄이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해제가 되는 안 되든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외환시장이 있었고 내일 주식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대로 열도록 하고 상황 관리를 잘하자 이런 정도로 하고 끝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날은 주식시장을 다 열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안을 갖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F4 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가지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그냥 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의에는 저희가 몇 가지 컨틴전시를 갖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또 한다고요?

○**오기형 위원** 계속 해야지요.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6시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부총리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같이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느낀 것이 여럿입니다. 가장 크게는 대통령의 반헌법성 그리고 국가의 불안하고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위 군 간부, 경찰 일·이인자 등 권력 지도층의 용기와 양심, 지성의 수준이 보잘것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고 국민주권과 의회주의에 무지한 이들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들의 무엇을 믿고 따라가실지 걱정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엄 담화문에 나와 있는 예산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인데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경제나 예산 관련 인식은 경제부총리 등 기재부하고 경제수석 그룹에서 형성한다고 보는 게 보통 국민들 아닐까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경제수석비서관도 하셨고요. 1차관도 차관 오시기 직전에 용산에서 비서관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번 정부에서는 수석부터 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니까 수석비서관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 수석과 비서관 라인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금융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이 간 거지요? 그러면 예산과 경제에 대한 인식, 의회에 대한 무시, 의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이런 인식들을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했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기재부 관료들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경제 관료들이, 경제비서관들이 형성해 줬을까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기상 위원 기재부가 그동안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 재원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도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문제없다라는 인식으로 국회를 무시했지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대통령께 쌓여 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형편없고 정부를 발목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쌓여 가니까 이번과 같이 위헌·위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존재고 특히 기재부는 행정부의 일개 부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오셔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을 하시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는 이게 위법인지 위헌인지,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대통령 앞에 가서는 아무 말 못 하고 국회에 와서는 국회의원들한테 부득부득 대드는 모습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는 열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그걸 시행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국무위원 중의 상당수가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국무위원 중에 지금 현재 기재부 출신들이 그래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고위 관료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결과적인 책임 부분에 관해서,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충실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시는 도중에, 그런 바람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에 관해서 성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경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인식할 때 기재부만을 염두에 둘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함께 인식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히 다 한꺼번에 인식합니다.

○최기상 위원 입법부인 국회는 배제됩니까, 같은 인식 속에 포함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당연히 같은 인식 속에 포함됩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인데 경제 운용을 하시고 경제정책을 발표하시고 꾸리실 때 국회와 면밀히 상의하고 협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야가 장을 마련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설명드리고 협조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박수영 위원님께서 우리 야당 위원들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시경제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한국은행 방문해서 총재하고 충분히 토론도 했고 잘 인식하고 있고 또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표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확인 안 해도 되니까 그 질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정의와 포용이 높은 나라가 경제도 잘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문명국가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거고 야당 위원들이 이 정도 톤으로 질문하는 것은요 갖고 있는 어떤 분노 게이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되게 순화시켜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향해서 충을 들고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국회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부총리님,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회 적극 동의하신다고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정협의를 가지고 국정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정부가 이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회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저는……

○김태년 위원 이게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 관계없이 여야가 장을 한번 만들어 주면 제가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야 국정협의회든 여야정 협의회든 이름에 관계없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대외 신인도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총리, 내가 보면 참 기구해요.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비서관 하다가 기재부차관 하면서 탄핵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 하다가 장관 하면서 탄핵 이렇게 돼요. 팔자로 치면 참 기구한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위기는 있었지만 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 동력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 이 내란 사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두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엮친 데 덮친 격이에요.

제가 부총리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자꾸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예산, 이 예산을 완성판으로 보셨어요? 이게 다 완성된 예산으로 보셨어요? 저는 정부도 기재부도 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시장에서 이걸 완성판, 내년도 예산 다 완성됐다 이렇게 본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은 추경의 형식이 되더라도, 추경의 형식을 빌리겠지만 어쨌든 증액과 관련한 협상은 남겨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고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다음에 성장을 그나마 지금 한국은행에서 1.9%까지 내려놨는데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냈지만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중앙은행에서도 추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총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추경 안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어요, 지금 특히 내수가 아주 엉망이 돼 버렸는데.

이번에 계엄 하고 나서 각종 송년회, 단체가 다 취소가 돼 가지고 어떤 식당을 갔더니 식당 주인이 울려고 그래요. 거기 종업원들이 월급을 30만 원씩 다 그 사장한테 반납을 했대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 추경이 애초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상황에서 나는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또는 여당이 추경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말할 수 없어 이런 식의 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추경 이야기를 왜 못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자체가, 예산이 집행…… 내년이 시작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완성되지 않은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탄핵 국면, 내란 사태 국면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는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최대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답변 안 하셔도 장관과 총재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보면 실제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의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해제 후 12월 5일 날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증명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해제까지 윤석열 계엄령 선언은, 대통령이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큰 오판이다. 미국의 분석가들, 한국 대통령이 큰 정치적 실수 중의 하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OECD나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격, 코리아 밸류가 1980년 광주의 비상계엄 후 45년 동안 수많은 민주주의와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키워 와서 현재 2024년까지 왔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잃어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 금리, 환율, 외환보유고, CDS 프리미엄, 모든 부분들이 특별한 차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후과는 수조 달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한 피해 대가를 또 보게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사실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관련한 국정농단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죄는 현재에 비하면 저는 솔직하게 조족지혈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그 당시의 당도 사과했고 그러면서 빨리 정돈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선 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라고 지칭하는 분들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패배나 정치적인 후퇴일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치와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총리와 총재께서,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주체 핵심 두 주체께서 중심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나머지 문제, 재판의 문제는 그건 별도로 하고, 제가 보기에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총리와 총재께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에 관해서 총재님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부총리께서는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책적 노선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정책적인 믹싱을 통해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

서 여야 국정협의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와 부총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치 프로세스는 우리 헌법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수개월 걸릴 거라고 해외투자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투자자들이 보는 것은 그 수개월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경제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합의하에 경제정책만큼은, 이 수개월 걸리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도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법도 고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용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배들리 미스저지드(badly misjudged), 커트 캠벨 얘기입니다. 디플리 프로블러매틱(deeply problematic), 매우 문제 있는 행동이다. 일리지터메이트(illegitimate), 불법적인 행동이다. 커트 캠벨 얘기입니다.

포브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국의 GDP 킬러, 윤석열’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페이(pay)하나, 5100만 국민들이 페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후과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제가 책 한 권 선물한 적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자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아제모을루 그다음에 존슨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아제모을루, 로빈슨. ‘좁은 희망’. 거기 주장들이 뭐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경제 발전에 제도가 중요하다는……

○**김영환 위원**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만났을 때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다. 권위적 정치제도를 만났을 때는 그 한계가 중국, 박정희…… 이렇게 언급도 했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오래가지 못한다.

때로는 둘 상호작용에 의해서 포용적 정치제도가 착취적 경제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포용적 경제제도가 착취적 정치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왜? 경제는 정치 과정의 산물이다.

이분들 학과가 어디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학과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다른 게 있어서요.

○**김영환 위원** 여하튼 제도학과하고 고전학과 영향들을 많이 받은 분들이지요. 그런데 역사 경제학자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는 통찰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건전’ 자 제가 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기금 돌려막기 해서 국가부채 줄이고 미래 자산 없애고.

4/4분기 경제성장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지금 0.4 정도 예상해서 올해 성장률 2.2%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2.0 간신히 턱걸이하겠지요,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렇지요? 23년 1.4%……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0이 될지 2.1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간신히 턱걸이할 것 같은데, 이게 1/4분기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내년엔 경제성장률, 씨티가 5일 날 다시 1.6%로 내렸어요, 1.8에서. 이게 5일 날입니다, 계엄 상황 이후에. JP모건 1.8에서 1.7, 노무라 1.9에서 1.7, 바클레이스는 1.8로 그대로 유지했고 골드만삭스 2.2에서 1.8, BoA 2.2에서 1.8, HSBC 1.9에서 1.7, UBS 2.1에서 1.9, 1%대지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하방 리스크는 더 커졌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의 리스크가 더 진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23년도 1.3%하고 25년도 1%대입니다.

부총리님, 1%대 경제성장률 맞이한 게 언제, 언제예요?

IMF, 금융위기 그해, 코로나,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벌써 두 번째 1%대 경제성장률입니다. 이거 극복해 줘야 됩니다.

두 분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을 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켰습니다. 그 바탕하에 두 분이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부총리님,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 계엄 쪽지, 예비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기타 다른 이행되는 절차, 내용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그거는 언급할 사항이,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황명선 위원**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처음 시작할, 그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됐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F4 회의가 새벽 0시 40분에 끝났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11시 40분에 시작해서 0시 40분, 50분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40분쯤인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PPT 여기에 자료 나오지요. ‘정부는 금융·외환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즉 보니까 계엄령하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는 보도자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계엄하고 연결시키시기보다는……

○**황명선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낸 거 아니겠어요? F4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런 비상 상황에……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5·16 군사 쿠데타나 12·12 군사 반란 직후 민생이나 금융이나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대응 잘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법, 법률을…… 위헌적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알고 기재부가 움직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금융 당국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사후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한 겁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금융시장이 반민주적이고 후진적인, 계엄발생한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하고 거래하는 그런 나라나 투자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위원님들이 몇 말씀 했는데 F4 회의를 통해서 대응을 잘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긴급한 F4 회의를 한 것이지요. 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수장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암묵적 동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F4 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S&P나 무디스가 국가 신인도 평가를 하는데 하락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공으로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저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은 윤석열이다 이 얘기예요.

윤석열의 리스크를 신속하게 제거한 곳은 어디예요? 국회예요, 국회.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이 겨울 엄동설한에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S&P나 무디스가 가장 중요시, 국가 신인도를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민주적 시스템이에요, 민주적 절차.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고

그리고 빨리 직무정지를 시켰다라는, 윤석열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거지요.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내용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황명선 위원 그리고 국민들께서 야광봉을 들고 100만, 200만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그렇게 민주적 절차…… 무슨 소요라든가 아니면 몸싸움이라든가 무슨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 없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무디스나 S&P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에 대해서 단계 조정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황명선 위원 이번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10%대였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민생경제가 최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도 굉장히 큰, 뼈아픈 그런 반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인데 계속 모든 일정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신이 나야지요. 모임 하는 것 자체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계엄 사태와 관련된,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해서 골목경제, 소상공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사실관계 몇 가지만 여쭙보고 대책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7일 대통령이 국정을 당에 일임한다고 담화한 이후에 대통령하고 장관은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7일 이후에, 그날 7일 날 잠깐 찾으서 가지고 뵈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언제 찾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7일 날 찾으서 가지고, 아마 정책실장하고 찾으셔서 저한테 당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경제를 잘 챙겨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박홍근 위원 일반적 얘기였습니까? 본인이 이제는 국정을 일임한다고 얘기를 한 이후인데도 불러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경제를 잘 챙겨…… 그러니까 국회, 당하고 잘 협의를 해라 이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 박홍근 위원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 박홍근 위원 그러면 8일 날 대국민성명을 부총리가 발표했는데 그건 대통령께 미리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 박홍근 위원 단독으로 했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 박홍근 위원 그리고 9일부터 10일 국회 본회의까지 예산안 협상을 지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협상안을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안 했습니다.
- 박홍근 위원 안 했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 박홍근 위원 그러면 검찰 특활비와 같은 윤석열의 관심 예산을 다시 살려 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은 부총리의 판단이었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애초부터 특활비에 대해서, 어차피 검찰의 특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부 복원해 달라는 건 아니었지요. 전부 복원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자체 판단이었다 이거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체 판단이었다 이 말씀인 거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 박홍근 위원 윤석열은 12월 12일 담화문에서 10일 날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할애된 것은 다 보셨을 거예요.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서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아닙니다.
- 박홍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직접 다 읊었다는 것입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홍근 위원 거짓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거기에 왜냐하면 좀……
- 박홍근 위원 거짓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저는……
- 박홍근 위원 그걸 답을 해 주십시오.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무슨 얘지요?
- 박홍근 위원 대통령이 그날 언급한 내용들,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쪽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거기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강하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걸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홍근 위원 왜 놓칩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대통령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킨 사람들이 기재부예요, 제때 바로잡지 않고.

여쭙보겠습니다.

탄핵소추만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일단 불확실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최종 파면이 결정돼야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들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경제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부총리는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를 위해서는 탄핵이 낫다고 발언한 거 확인됐잖아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국회에 답변한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빨리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현재의 결정이 길어질수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 그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금융시장은 윤석열 리스크의 근원적 제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아지려면 현재 심판 기간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윤석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외신은 ‘GDP 킬러다’ 이런 오명으로 보도를 했어요.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봤습니다.

○박홍근 위원 동의하니까?

계엄 선포를 해 버린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깨 버린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제 심리적 저항선인 환율 1400원대 고착화가 됐고 내란 사태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외환보유액 순위 한 단계 떨어졌고 3000억 달러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려 볼게요.

우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2기 대응해서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경제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되게 한시가 다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아까 전에 2시에 문자를 받았지만, 들어오라는 문자는 받았지만까지는 앓으셨고 4시쯤에 해제 국무회의라고 문자를 받고서 가셨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지요, 그거는 사후에 알았고요.

○차규근 위원 사후에 알았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런데 제가 4시 반에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4시 가까이 돼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왔다는 걸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2시에 들어오라라는 문자를 받고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어떠한 그런 거에도 응하지 않겠다 생각했고.

저의 우선순위는, 그 소집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의 2개 마치고 와 가지고 회의 상황을 챙기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아침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그날 본회의장에 모였던 국회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도 계엄법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또 어떤 절차로 해제가 되는지 우리가 그때 다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국무회의가 열려야 계엄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시에 가결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도는 했지만 이제 빨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열려 가지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계엄 해제를 했더라는 그 소식이 들리기만을 저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계속 했는데 장관님께서 그런 생각 못 하셨습니까?

경제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쟁길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가장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1표를 행사해서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경제에 필요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차규근 위원 부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십니까, 그거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니, 그렇게 명석하시다고 유명하신 장관님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국무회의 열어서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되는데 2시 문자 보고도 안 들어가신

이유는 그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뭔가 여전히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2차 계엄 하려고 할 경우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2시에 문자를 받고도 바로 대통령실에 안 갔던 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건 너무 확대해석이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헌법기관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판단으로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아예 안 가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보를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때 사표 내겠다라는 의사는 표명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사표……

○차규근 위원 불참 통보만 하시고 사표 내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가……

○차규근 위원 그 말씀은 하신 적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연락하는 사람한테 사표를 내겠다는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12월 3일 이후에 휴대폰 혹시 교체하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2월 3일 이후에……

○차규근 위원 휴대폰 교체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안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혹시 이번에 수사기관에 쪽지 제출할 때 휴대폰도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포렌식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차규근 위원 휴대폰 제출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쪽지에 있는 예비비 문자 관련해서 그것이 그 직후에 한은이 조치한 RP 매입과 관련된,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RP 매입은 한은의 발권력으로 하는 것이지 예비비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정자금하고는 무관합니다.

○차규근 위원 무관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차규근 위원 한은의 발권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총재님,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 쪽지는 계엄 조치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 관련해 가지고는 기재부 간부들 회의에서 아예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거는 사후에 알았습니다.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아까 12월 7일 날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총리님하고 같이 만났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총리랑 뵈 건 아닙니다.

○차규근 위원 누구랑, 아까 누구 만나셨다고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마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정책실장.

혹시 그 당시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도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혹시 예전에 경제 관련, 대통령실에서 회의할 때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배석하거나 참석해서 발언한 적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수석 할 때는 국정기획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다른 직책 가지고 있을 때 김동조가 참석한 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 했…… 질문 자체를……

○차규근 위원 김동조가 과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장관님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석으로 근무하실 때 경제 관련 회의에 김동조 국정비서관이 참석한 적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그때 수석 할 때는 국정기획비서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다른 비서관으로서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연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설문 작성에는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아까 박수영 간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상 경제 상황이라서 부총리님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질의를 안 하시기로 하고 저희들도 7분 질의할 거를 5분으로 지금 줄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좀 제안한 게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 경제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라도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지금 당정 협의가 계획되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보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발언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기재·외교·국방·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우리가 민생 관련 대책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기재부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만나고 나서 국회의 어떤 법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민주당도 또 만나셔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필요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야가 같이 해 가지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어떤 생각이냐 하면 시간을 아끼자고 박수영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 다 쫓아다닐 필요 없이 최소한 우리 당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든 원내대표든 이런 협의체 틀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법안으로 갈 것 또는 재정으로 갈 것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을 아껴 주는 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현재 여당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그건……

○**신영대 위원** 대통령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잖아요. 원래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직무 정지됐어요. 대통령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여당이 맞아요? 당정 협의회 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데 법적인 해석은 아마 국회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런 판단들 하셔서……

실제 지금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현재 판결 나기 전까지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면 지금은 당을 떠나서 정파를 초월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시기가 지금이라 생각하는 건데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하여튼 국회에서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어쨌든 오늘 탄핵, 비상계엄 내란 선포 이후에 여러 경제 단체들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 보셨지요?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정치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거의 46.9%에 달한다 이런 조사도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국내 30대 주요 그룹 CEO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내용도 보셨지요? 90% 기업, 27곳이 내년엔 경영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 답변했고 이 중에서 특히 4곳은 IMF 이후

에 가장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의 기업이 내년에 투자 규모와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들도 현재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재부장관님이나 부총리로서 총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 는 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파나 정당을 초월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상훈 정책위의장님 말씀한 거 보니까 무슨 법안들 몇 개 말씀하셨는데 법안 다 지금 우리 기재부 소관 법안 아니지만 산업부랄지 관련된 정무위랄지 이런 관련 법안들 다 통과된 거 아시지요, 상임위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법사위에 남아 있잖아요. 이거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합의해서 상임위 통과한 법안들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지금 탄핵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협의를 총리님이 함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기재위도 지난번에 세법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조세특례제한법 몇 가지 있었지요?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재위에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간 사님 어떻게 조속히 처리할 건지 한번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국무위원 모임 때 받으신 문건 내용에 대해서 부총리의 증언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유동성에 관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다’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가 말……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저는 예비비라는 걸 기억을 못 했고요. 그거를 봤는데 저는 재정자금의 유동성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도걸 위원 당시 워낙 경황이 없고 아까 표현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계엄의 후폭풍이 가장 셀 곳이 금융·외환시장, 아마 그 불안 때문에 이미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동성도 통상 말하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예비비 등 재정자금이다 하는 거는, 분명히 재정자금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직접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필요한 긴급한 소요가 났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계엄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아마 그런 취지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담화 때마다 예산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예산 폭주, 재정 폭주 말씀을 막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4일 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격양이 돼서 그랬겠지만 너무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회 예산이 늘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성장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고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3억 전액 정부안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관련 백신 예산, R&D 예산도 다 깎아 버렸다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1개월분 36억 감액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성과가 좀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조정을 했고 상임위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사실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아니면 왜곡 보고가 돼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숫자나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데는 예산실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산실에서는 전혀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혀 없었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의 명예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당 위원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네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감액안만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결위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시다마는 예결위의 예산 심사 관행을 보자면 감액은 국회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증액은 정부가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주도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회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지요. 굉장히 익숙했던 관행들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2일이면 법정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결위가 의결을 못 하더라도 그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결위 심사에 있어서 시간은 정부 편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게 사실이지요. 그래 가지고 12월 2일 되면 예결위는 사실상 기능이 종료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의사결정도 못 하고. 그게 선진화법 이후 10년 동안 여덟 번 반복된 상황입니다. 이게 예결위가 제 역할을 못 한 아주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말로 법정시한 내에 예결위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감액은 어느 정도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감액만 한 거고 증액은 정부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그거는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력에 이제 맡긴 거지요.

그걸 가지고 예결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위가 실추됐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결위의 기능을 회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체 감액안을 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액안을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예결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 작업은 예결위 사무처가 뒷받침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누가 하는 게 아니예요. 아까 아침에 저와, 특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의 의원님을 거명을 해서, 세출과 세입예산을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 심사했고 그에 관해서 예산 작업을 하는데, 문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관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그런 작업, 사무처가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민주당, 개별 당 입장에서 그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못 만들어서 꼭 기재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대리 작업을 시키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이번의 예결위 심사 과정을 이렇게 봤다면 그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했던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은 기재부에 있는 모든 일을 보시는 분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치세력 간에 경쟁할 수 있고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란은 헌정질서 중단의 시기고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걸 얻고자 하는 세력과 이걸로 구분되는 겁니다. 정당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국 공직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하면 그것도 끝내 퇴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행정적인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느냐 그 수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퇴출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 국가적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헌정질서 중단과 관련된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가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 다시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태가 가장 중요한 게 왜 조기에

우리가 정리를 못 했을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 하실 분들이 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누가, 또 이런 사태 벌어지면 그때 방관할 거냐 이거 묻는 겁니다.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전부 다 나중에 장관 하시고 나중에 대통령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하면 또 도망갈 겁니까? 또 한 번 발생하면 또 동조할 겁니까?

묻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묻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복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기해 보자는 겁니다.

12월 3일 11시부터 1시 사이에서의 조치, 또는 기재부장관이 회의하시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이 이후에 부화수행 행위를 했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시점에서는 뭘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탄핵될 때까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것 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몇 번 만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 한 번 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딱 한 번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정책실장이랑 만나고, 딱 그거 한 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거기에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12월 4일 이후에 제가 다른 질의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집행 관련 범죄를 발견하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 시스템이고.

이게 직무고발 대상인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헌법을 수호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개별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죄를 발견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한 10여 일 동안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느냐 계속 여쭙본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답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서 나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란죄를 발견했으면 수사기관들한테 수사해라라고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특히 한덕수 총리 안 하셨어요. 오히려 국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알아서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내란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국수본이 움직일 때 속도가 있었던 거지요.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 의혹이 크기 때문에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까 봐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군검찰이 움직일까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호소한 거지 않습니까?

양심 있는,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집결해서 수사합시다. 그래서 각자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사기관들이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왜? 국무위원들이 다 방치했으니까. 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고 앞으로 또 나중에 내란 발생하면 국무위원들이나 국무총리나 도망가고 책임 안 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거지요.

조기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아, 이건 아니겠다’ 하루만 딱 지나면 알거든요. 저도 하루만 보면 그냥 알겠더라고요. 류혁 감찰관은 그냥 보고 가는 길에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경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란법을 조기에 격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격리시키기 위한 작업을 뭘 했냐라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내란이 발생하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배들이 보고 정말 믿을 만한 존경하는 선배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총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의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이면 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부총리,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여야정 또는 국회와 정부 간의 국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이미 내란 사태가 나기 이전에 1.9%까지 낮춰졌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은 총재 답변하시는 거로는 이게 1%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9에서 0.06이 빠지면 지금 그것만 계산해도 1.84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예산 삭감 효과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률이 더 내려가는 것을 막고 또 성장잠재력을 계속 늘려 나가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거기에 첫 번째는 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이 한편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AI라든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AI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 제도는 결국 국회에서 법으로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사실 지금은 여야를 가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소수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정부와의 협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해 오던 당정 협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나……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소수당, 다수당 이거 나눌 필요가 있는가,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용어,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야 간에 그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인 것이 기왕에 합의가 돼 있는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지금 특히 이 내란 사태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것은 내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와 있고 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다중채무 비중도 엄청나게 높고 또 더욱이 자영업자 매출이 이미 1000조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12월 5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내년에 10조 원 규모 채무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올해 5조 했던 것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이 상황 전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거고요. 저희가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을 찾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마련할 생각입니다.

○**윤호중 위원**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도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가 이미 9만 명이고 채무액 규모는 15조에 달하는데 지금 내년에 10조를 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6만 명 정도, 3분의 2 정도밖에 해소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리고 아까 한은 총재께도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채투자평가 제도를 은행과 저축은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각 금융기업들이 갖고 있는 초과수익들을 환원시키는 방법을 기재부에서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 가결까지 10일 남짓, 산술적으로는 짧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길었던 그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크고 작은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만 저는 실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 경제와 무역에 몰고 올 경제위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은 이를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가지가 걱정입니다.

첫째, 지금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큼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1기 집권했을 때 233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를 2019년도에 트럼프는 거의 절반인 114억 달러까지 떨어뜨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해서 2024년도에 444억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트럼프 정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데 수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고 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무역 흑자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 무기 구매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까지도 생산시설을 미국 이전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이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출범 맞아서 범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후속 조치가 안 들려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유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부총리님, 경제 분야 수장으로서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지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외교장관하고 저하고 산업부장관이 하는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가지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포함해서 저희가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또 두 번째,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다른 나라 일 자리를 뺏어 오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역대 최대 투자 실적을 보여 줬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전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같은 정부의 핵심 정책, 이것 790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투자 총액 중의 44%가 미국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투자 기여도 세계 1위, 미국 일자리 창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근거로 트럼프 정부 요구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산업부나 외교부 등과 논의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지금 민관이 역량을 최대한 협력을 해 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기업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 틀을 짜고 있습니다. 짜면서 분야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액션 플랜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세 번째, 역시 방위비 인상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는데 대선 직전에도 트럼프는 한국이 현재의 열 배인 100억 달러를 매년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하고 보편적 관세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담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한은도 최근에 얘기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아래로 잡았고 또 세수도 지금, 올해 세수결손도 한 30조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내년 세수 목표 달성도 세목별로 살펴보면 달성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확보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방위비 협상 정도는 제가 담당 분야가 아닙니다만 그게 일단 일단락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 외교 그다음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한 시기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지금 해외는 뭐, 캐나다 총리는 바로 찾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는 이 시기에 기재부장관님하고 또 한은 총재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쪽지 받은 얘기도 다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선 완전히 이게 납득은 안 되는 거예요, 장관님 입장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걸 뒀는데 안 보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그 쪽지에 보면 재정자금 이야기도 나오고 유동성도 나오는데 그게 같은 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차관보가 예비비 등 재정자금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당시 기억으로 재정자금의 유동성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워딩을…… 저는 예비비라는 게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사실은 재정자금은 예비비로 해석이 되고 유동성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재정자금의 유동성이 예비비입니다.

○**정일영 위원** 물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정자금의 유동성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지금 장관님은 같은 걸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재정자금의 유동성입니다.

○정일영 위원 한은 총재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유동성은 주로 한국은행에서 RP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구를 같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총재님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쪽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쪽지는 안 보셨는데 오늘 얘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국은행에서 하는……

○정일영 위원 왜 얘기를 하나 하면 F4 회의에서, 계속 F4 회의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유동성 결정을 한 거예요, 무제한 공급으로. 그게 묘하게 일치가 되면서 돌아가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하여튼 유동성은 한은에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한은에서 하는 게 유동성입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관님은 재정자금을 예비비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으로 보신 거고요. 일반적인 유동성은 다른 걸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사의 표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장관님. 그게 의지의 표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의 표명을 구두로만 하신 거지요?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는 사의는 구두로 표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 그런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제가 예결위 때 질의하면 ‘지난 총선 끝나고 사의 표명을 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시는 거예요. 장관들이 많이 사의 표명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사의 표명은 정식으로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 총리, 권한대행께서 무슨 반응이 있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챙겨 달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챙겨 달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게 말하자면 비상계엄 해제되고 나서 이야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결위원 또 소위 위원이기도 하면서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것은 사실 예비비 2조 4000억하고 국고채 이자 5000억 삭감…… 제가 기재위 소위원장이기도 하면서, 그게 2조 9000억 아닙니까? 기금 빼고 3조 5000억 정도 될 거예요, 일반회계가. 그중에 2조 9000억이니까 상당한 액수인데.

그 관련해서 계속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증액도 사실은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정책적인 증액 또 위원님들의 지역 관련되는 예산. 장관님도 그 증액 관련된 보고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주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과정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희가 그 주 화요일 날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금요일, 그러니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11월 29일 날까지 기재부의 그 반응, 우리가 증액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전혀 안 왔습니다.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본 거예요, 기재부의 그 태도가. 우리가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 증액에 대해서. 그런데 장관님은 그것 모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정일영 위원 그리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다리다가…… 11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2월 1일이 일요일일 겁니다, 그리고 12월 2일 법정시한 그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고.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그런 감액만 가지고 의결이 들어간 거고요.

그때 우리는 민생예산도 했지만 여당, 국회에서는 주로 특활비 감액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의결이 됐지요. 그때 아무 말씀도, 인사말씀 안 하셨고.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우리는 솔하게 기재부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민생예산 챙겼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산 할 때 마다 항상 그래요. 질질 끌다가,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는 그런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다리시는 건지 반응을 안 보이세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액 의결이 된 겁니다.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 책임이 아니고 저는 기재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심의 의결에.

장관님, 못 받으셨습니까, 그 증액에 관한 보고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차관님, 보고 안 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당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체 회의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때 이미 내용들이 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아니, 예결위 소위에서 각 위원별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구두로 말씀하셨던……

○정일영 위원 아니요, 차트로 해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것도 차관은 모릅니까? 그러면 기재부 내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위 위원별로 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화요일 날.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소위 위원님별로 해서……

○정일영 위원 소위 위원별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님 계시지만 정책별로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죽죽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어쨌 답변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 사업을 전달받았다는 말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일영 위원 차관님도 그 전체 내용은 안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 숫자가 많아서 아마 검토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하셔야지.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차관님도, 장관님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반응을 아무것도 안 보이시고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결국은 그렇게 감액만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아닙니까. 기재부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성하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또 해요?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분기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건 이번 내란 사태와 연관돼 있는 사안이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도 분명히, 지금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뒤에도 봐야 되고……

○정태호 위원 아까 경제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그게 지금 내수에도 나타나고 있고, 바로 동네 가 보면 지금 송년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은 11월 달에 1.9%로 예상을 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이걸 이번의 사태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성장률 예측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1.9%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확실하게 변화한 것은 저희가 원래 예측했던 정부 예산안

보다는 수정된 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을 0.06%p 떨어뜨리는 걸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금리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리고 또 새로 12월 달, 1월 달에 나오는 실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4/4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난 11월 달에 예측했던 내년도 성장률도 1.9%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4/4분기의 지금 경제 상황이 내년 1/4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도 -0.06%의 부정적 영향을,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내년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님, 이렇게 보면 뭔가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대응 정책이 어떤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답변을 원하냐 하면 지금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소비와 수출,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재정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어떤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의 명확한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운영, 방향 또는 그 전에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 주니까 저희들이 되게 답답해요.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또는 정책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답변 말씀……

○정태호 위원 아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이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니까, 아니면 떨어질 걸로 보니까, 아니면 더 올라갈 걸로 보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일어나기 전보다 한 30원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 파트는 더 이상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충격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엔화와 위안화가 압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절상 압력을, 미국에서 달러 강세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환율이 더 올라가면 당장 내년도 물가에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금리를 인하하는 데도 장애로 작용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복합적으로…… 하지만 반드시 또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이 조만간, 금주에 결정이 될 텐데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서 상반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아까 총재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치 프로세스는 일정 기간 간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정치권과 정부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름이 뭐든지 간에, 국정협의체가 되든 뭔가 하나의 논의의, 협의와 합의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국정협의체에 대해서 여당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한 결과 재보충질의를 네 분의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거부권 이야기가 언급이 됐는데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나 조세 관련 법안 자동부의 제도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이 상황 발생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의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썄요. 이 자동부의 제도라는 게 아시겠습니까라는 여야가 2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입법이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와…… 그래도 여야 협의 없이 폐지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제 의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게 국회 내부 의사절차인데 정부가 관여하는 게 맞냐?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특히 조세에 관련된 것은 시행시기는 언제든지 바뀌어서 세입예산안과 상관없이 풀 수 있을 텐데 세입, 특히 세법 관련해서 자동부의 제도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수결손 이슈입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 약 29.6조 이야기했다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 보고드린 그런 보전 대책으로 대응 가능할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더 이상 추가적인 세수는 없다, 세수결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기형 위원 지금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오기형 위원 이후에 세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뀌야 된다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는데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고 이걸 풀면서 다시 다른 조세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서는 좀 더, 지금 여기서 결론 내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논의나, 실은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은행 보고서 중에서 많이 얘기했던 확장적 재정 문제에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내용들, 오히려 능동적으로 기재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내년도 예산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몇 가지 입법 같은 거는 빨리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사실은 오늘 조금 당황스럽고 제가 듣기가 좀 어려운 건요 사법부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못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씨도 아니고 윤석열이 이러니까 듣기가 조금 민망하고요. 아무튼 이런 물증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재부는 다 국가공무원을 지낸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조금 전 부총리님한테 질의 중에 윤명이 기구하다, 탄핵당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사의 표명을 구두로 했냐 서면으로 했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다 보고 있다고요, 공무원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언어는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유립장이 곧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일찍 마쳤으면 생각해서 저는 질

의를 안 드렸는데 이미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고건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구요. 우리가 올리는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리 목숨이라고는 하지만 앉아서 파리로 죽든 쫓아 보내든 어쨌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야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딱 올 때 제가 얼른 떠올랐던 거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논의의 주도권을 줄 테니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정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 의견은 안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씀 하는 걸 그때 들으면서 이 위당을 보고 ‘주도권을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이래 갖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서로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진정성을 보여 주고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말보다는 진심 어린 행동으로 나서 주기를, 양당 해서 어쨌든 국정안정협의체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 총재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WGBI 편입에는 문제가 없는지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가짜뉴스가, RP 매매를 했는데, 블로그에 해명은 했지만 151조를, 엄청난 돈을 풀어서 물가상승을 유도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막 돌아다녔다고요. 그래서 블로그로 해명을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블로그로 해명을 하고 있고 그거는 만기 14일을 그냥 단순하게 나간 돈에다 14를 곱한 액수로 오해가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GBI는 지금 기재부에서 여러 부처를 총괄해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감액 예산안만 예결위에서 일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예결위 권위를 실추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김태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완성판으로, 최종본으로 봤나. 그 말씀 뜻은 사실은 예결위 의결을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고 중간 압박수단으로 썼다는 거를 말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거고요.

그전까지는 예결위가 최종 의사결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정부와 협의도 안 하고 기재부에 끌려가기 싫어서 힘으로 일방 처리한 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전까지 선포들 한 거는 다 틀리고 올해처럼 일방 처리한 게 맞다, 예결위 기능을 회복한 거다 이런 주장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산안을 짤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는 겁니다. 행정부가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애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방 독주 상태가 바람직하냐 이런 거를 저는 지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도, 지금 절반 삭감했지만 예산총칙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이런 것도 이 비용으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예비비가 1조 2000억 수준으로 삭감된 거고 목적예비비는 4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수 있을지 제가 걱정입니다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추경 하라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안 하고 필요하면 추경 하라는 게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추경 하는 데 최소 한 달 걸립니다. 그 많은 행정력 낭비 문제도 있고 또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추경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경 사유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사유 어디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국가 기능 필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분간은, 아직 회계연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분간 추경은 쉽지 않다. 다만 앞으로 재해대책의 예비비가 부족해지겠지요. 부족해지거나 내수 부진 등의 경기 상황이 극심하게 나빠지면 아마 추경은 그때 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 673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민생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이것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일단은 같은 의견입니다.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예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9일 날 의결하고 그리고 본회의를 12월 2일 날 하려다 12월 10일로 의장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또 정부하고 협의하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12월 3일 날 갑자기 특공대가 국회로 쳐들어온 거예요, 내란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라 그랬지,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10일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특별한 액션이 없었지요? 12월 2일 이고 3일 이고 간에 없었잖아요.

저녁에 비상계엄 내란 특공대가 여기 쳐들어왔고,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시간 가는데.

있었어요, 예산 이런 것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

예요, 기재부도.

제가 계속 추경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소신껏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내가 부총리님께 술하게 얘기했어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그거 아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통화정책, 재정정책 둘밖에 없는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총재님, 경제 계속 어려우면 금리 좀 내리실 것 고려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저희가 판단할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속도를 보면서 결정하시겠지요.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면 내수가, 또 내려야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시기와 속도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재정정책은 결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추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에, 저 PPT 자료 보면 어제 뉴스에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추경 관련해서 예비비하고 특수활동비……

장관님, 이 뉴스가 맞습니까? 추경을 하면 예비비, 특활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부터 해야겠다 이게 맞는 뉴스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모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명 자료를 내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이 뉴스를 보고 이거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틀린 뉴스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 뉴스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공보관이나 대변인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의혹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내년에도 초부자 감세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세수결손이 우려되는데 결국에 실탄, 소위 재정,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든지 하여튼 돈을,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로 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1분 더.

○정일영 위원 환율이 제일 중요한데요. 환율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한은 총재님이십니까 아니면 기재부장관님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같이 하시지요?

아까 주로 한은 총재님한테 질의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총재님, 마지노선이 얼마, 1500으로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레벨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일영 위원 언급을 안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언급을 안 합니다.

○정일영 위원 위험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저희는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두 분이 책임지고 환율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태니까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들어서고 우리나라의 이 비상사태 때문에 내수도 수출도,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송년회도 취소된 거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어쨌든 부총리께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제를 살려 주시고 두 분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 특히 어려운 문제 많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안도걸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상목

제1차관 김범석

제2차관 김윤상

차관보 윤인대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박종우

기획협력국장 김태경

커뮤니케이션국장 최재효

조사국장 이지호

금융안정국장 장정수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발권국장 김기원

국제국장 윤경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9)

이상 5건 11월 13일 회부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이상 5건 11월 1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6)

이상 3건 11월 1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이상 3건 11월 18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이상 3건 11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이상 3건 11월 2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이상 4건 11월 28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8.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이상 3건 11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이상 3건 12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2)

이상 5건 12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이상 7건 12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2월 5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운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6)

이상 3건 12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2월 1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이상 3건 12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2월 16일 회부됨

○청원 회부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1. 20. 유현준 외 56,14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8)

11월 21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9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9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9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9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94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9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8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04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일부개정	법제처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법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법제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8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87호	일부개정	국세청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1090호	제정	기획재정부